BOOK REVIEW

서 평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

통합연구 제9권 1·2호(통권 29호)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

- 마르크스를 넘어 헨리 죠지로 -

From Wasteland to Promised Land:
Liberation Theology for a Post-Marxist World

Robert V. Andelson, James M. Dawsey 저, 기독교경제학연구회 역, CUP, 1996.

이재율

이 책의 원제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탈마르크스 세계를 위한 해방신학」(*From Wasteland to Promised Land: Liberation Theology for a Post-Marxist World*)인데 이 책에는 신학적인 내용과 함께 경제학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목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원제는 매우 상징적이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방황하던 광야와 마침내 도달한 약속의 땅을 현대의 경제적인 의미로 상징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광야는 무질서, 사회적 불평등, 자원의 남용이 지배하는 곳을 말하며, 약속의 땅은 사람들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과 서로 평화롭게 사는 사회적 평등과 자유가 실현되는 곳을 말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가? 저자들은 말하기를 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땅이 없기 때문에 대중들은 억압당하고 착취당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현상이

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민중들을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시키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해방신학이다. 해방신학자들은 약탈당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억압자들에 대항하여 용감히 맞섰다. 그들은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힘썼다. 그러나 상당한 수의 해방신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토지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파라다임,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체계가 필요했다. 구약성경에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면서도 토지만은 하나님의 것이요 민족공동체 전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토지는 독특한 생산요소이며 동시에 인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다. 성경의 정신은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므로 평등한 접근권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유명한 교부인 존 크리소스톰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 하나님은 지구를 모든 사람에게 다같이 무상으로 하사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공동의 것이라면 왜 당신은 그렇게도 많은 에이커의 땅을 소유하는 반면 당신의 이웃은 한 조각의 땅도 없는가? … 공동의 것을 당신 혼자서 향유한다는 것은 악이 아닌가?

이러한 성경적 입장 하에서 정치경제학을 수립한 사람이 바로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요 사회철학자인 헨리 조지이다. 그래서 저자들은 그의 이론을 많이 원용한다. 이 책은 바로 성경의 토지신학과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 그리고 각국의 역사적 사례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해방의 신학과 경제학을 제시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가 몰락한 이 시점에 민중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해방신학으로서 매우 설득력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머리말과 맺음말을 제외하고 8개 장이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 저자들은 중남미에서 토지의 독점이 이루어진 역사적 과정, 즉 식민지 시대에 토지가 엔콤미엔다, 메르세데스, 하시엔다와 같은 대토지로 분할된 과정을 설명하고 그것이 현재에도

드리우는 어두운 그늘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이 엄청난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여 민중들은 비참한 상태에서 신음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토지의 지나친 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남미 각국에서 토지개혁이 시도되고 수행되기도 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토지가 극소수의 대지주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현상이 있지만 중남미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불행하게도 교회조차 이 현상의 불의함을 간파하지 못하고 민중들의 천부적 토지권을 찾아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상태라고 저자들은 개탄한다.

이처럼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자들은 보프가 제시한 역사적 교회의 세 가지 모형, 즉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교회, 어머니와 교사로서의 교회, 구원의 성사로서의 교회 등을 검토한 후 보프가 브라질 교회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도출한 네번째 모형, 즉 인간성 회복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교회의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개인주의적인 기독교를 비판하고 나눔에 의해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의 의미를 중요시한다. 이 모형은 바로 해방신학의 관심과 일치한다.

유대-기독교적인 해방의 의미는 바알숭배와의 싸움에서 잘 나타난다고 한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풍요의 신일 뿐만 아니라 소농들을 지배하는 대지주를 의미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중들을 지배했는데, 구약성경에서 바알숭배를 그렇게도 비판한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억압과 착취를 질책한 것이다. 호세아,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대지주들의 탐욕과 호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였다. 이러한 통찰을 경제학적으로 재발견한 사람이 바로 헨리 조지였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은 구약성경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강조되어 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주린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러한 말씀들은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과 사랑을 나타낸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신다. 그들의 처지를 깊이 동정하시고 특히 불의에 의해 착취당하는 자들을 위해 보수하신다. 저자들은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틴 아메리카는 독립을 이룩했지만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2차대전 이후 경제발전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 이것을 목격한 종속이론가들은 그 원인이 세계중심부의 주변부에 대한 착취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종속이론가들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자유무역질서 속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룩한 반면, 수입대체전략을 추진한 중남미 국가들과 가장 폐쇄적이었던 알바니아, 북한 등의 낙후를 볼 때 종속이론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저자들은 이런 점에서 종속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내부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런 다음 저자들은 직·간접적으로 해방신학에 영향을 미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소외, 잉여가치, 착취, 계급투쟁,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등의 중요 개념을 검토한 후 저자들은 마르크스주의가 인간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인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인간의 자기중심주의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이익과 무관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시종여일하게 일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시장 대신 국가의 계획기구를 사용한 것도 결국은 비효율과 관료주의, 부패, 특권층의 형성 등을 초래하고 말았다. 마르크스주의는 인간해방을 염원하는 사상이긴 했으나 인간을 오도한 사상이었다.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제도가 잘못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서 있는 지적 장애물들을 검토한다. 그것은 임금기금설과 맬더스주의이다. 이것들은 사실 헨리 조지가 발견해낸 장애물이었다. 빈곤의 원인이 자본의 부족과 인구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이 설명은 오류라고 조지는 이미 지적하였는데 저자들도 그 설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빈곤의 진정한 원인은 진보와 함께 지대가 증가하는데 있다는 것이 조지와 저자들의 확신이다. 소수의 지주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지대를 독차지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대중들이 빈곤해진다는 것이다. 빈곤과 억압의 근본 원인은 바로 토지의 독점에 기인한다. 이 독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세가 전한 구약의 율법에는 각 가족과 모든 세대에게 땅의 평등한 이용권을 보장하며 하나님만이 그 땅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소유자라고 되어 있다. 이 정신에 따라 50년마다 희년이 선포되고 모든 토지는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아 갔다. 이런 토지공유 정신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는 무엇인가? 마르크스는 국유화를 주장했지만 이것은 토지의 자유롭고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국가기구를 비대화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지는 토지의 사용권은 현재의 지주들에게 그대로 주고 토지지대를 100% 조세로 징수하는 토지가치세제를 주창하였다. 저자들은 조지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토지가치세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개혁을 실시한 지역, 예컨대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폴 등의 고성장의 예에 비추어 이런 정도의 토지개혁이라도 기여하는 바는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등에서도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 토지가치세제에 접근하는 만큼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토지를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에 의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달할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성경의 비전과 조지의 정치경제학의 결합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세지로 다가온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고 인간을 처참한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하고자 하는 이상을 지닌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한국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의 경우 주기적인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온 나라가 투기의 열풍에 둘러 싸이고 영세민들이 전세의 폭등으

로 자살하는 현상까지 빚을 정도로 토지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의 양심적인 인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 이재율 ■

1955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 취득. 현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기독교경제학에 관심을 가진 여러 기독 경제학자들과 연구회 활동하다가, 올 여름 미국 Illinois대학에 교환교수로 재직. 저서로 「경제윤리」 외 논문 다수.